

그림 44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## 4. 방화

### 1) 범죄발생시간

- 2018년에는 총 1,478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1.4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으며, 24.6%는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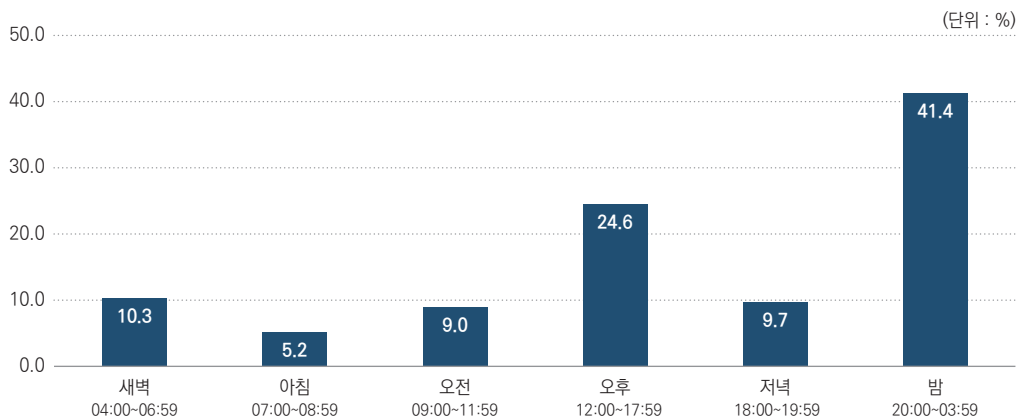


그림 45 방화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

## 2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의 83.6%는 남성이었으며, 16.4%가 여성으로 나타났다.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는 51세~60세가 30.9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(24.0%), 31세~40세(12.8%), 61세 이상(12.2%) 등의 순이었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의 비율이 31.7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41세~50세(23.2%), 61세 이상(12.6%) 등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는 41세~50세의 비율이 28.3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51세~60세(26.9%), 19세~30세(16.1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표 31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02(9.0)	8(3.6)	110(8.1)
19세~30세	126(11.1)	36(16.1)	162(11.9)
31세~40세	140(12.4)	33(14.8)	173(12.8)
41세~50세	263(23.2)	63(28.3)	326(24.0)
51세~60세	359(31.7)	60(26.9)	419(30.9)
61세 이상	143(12.6)	23(10.3)	166(12.2)
계	1,133(100.0)	223(100.0)	1,356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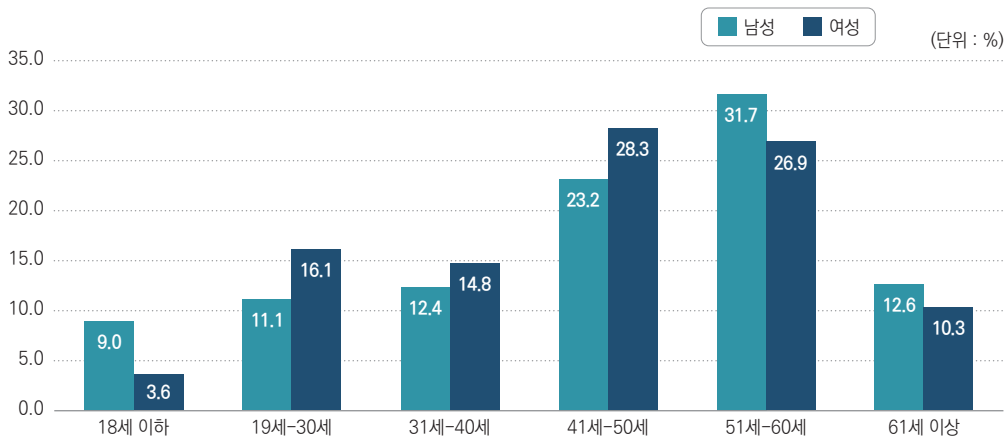


그림 46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# 3)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방화범죄 범죄자의 41.5%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, 47.6%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방화범죄 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10.8%였다.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(여성 20.7%, 남성 8.9%)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(남성 49.6%, 여성 37.4%).

표 32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정상	428(41.5)	83(41.9)	511(41.5)
정신장애	92(8.9)	41(20.7)	133(10.8)
주취	512(49.6)	74(37.4)	586(47.6)
계	1,032(100.0)	198(100.0)	1,23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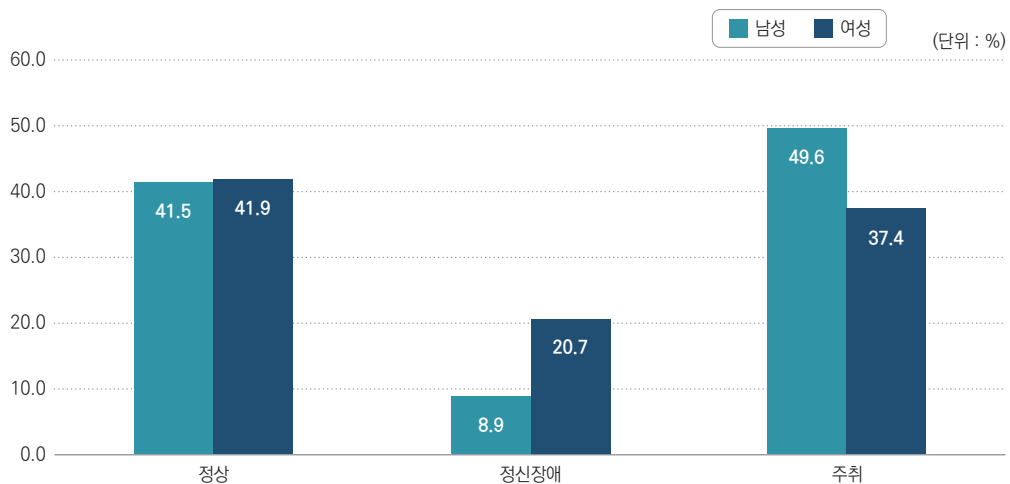


그림 47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